



기드온 이야기(삿 6-8장)와 아비멜렉 이야기(삿 9장)의 신학적 통일성

임신호(한남대)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다양한 지도자들이 나온다. 이 중 왕정시대 이전 시기인 사사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사라고 부른다. 사사기는 고대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온 다양한 전승들을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인 편집의도에 따라 상호 알맞게 편집한 책이다.¹⁾

사사시대는 위기의 시대였다. 이 시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다(삿 17:6; 21:25). 이 때 야웨께서는 사사라는 특정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 이들은 출애굽 및 다음세대를 이끌

1) P. D. Guest, "Can Judges Survive Without Sources?: Challenging the Concensu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8 (1998), 43-61.

었던 모세와 여호수아 때처럼 전체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지 못했다. 다만 자신이 속한 지파,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뿐이었다.²⁾ 또한 이 시대는 무정부, 무질서의 상태였기에 사사들은 다양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³⁾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안에 강력한 왕권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신명기 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삼상 8:10-22). 이러한 관점에서 사사기는 왕정제도에 대한 기대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사사들의 통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기드온 이야기와 아비멜렉 이야기는 그 중심에 있다. 또한 두 이야기는 신학적인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대다수가 이해하는 기드온은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이며, 야웨 신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기드온을 향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도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라는 그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다(삿 8:22-23). 반면, 아비멜렉의 경우는 배다른 형제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고자 내전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와 아비멜렉 이야기는 서로 상반된 주제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기드온 이야기에서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 이후 야웨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준다(삿 8:24-35). 곧 기드온 이야기와 끝부분은 그가 야웨 신앙의 부정적인 인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며, 그의 아들 아비멜렉 때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드온 이야기에 나타난 기드온이 보여준 부정적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할 것이며, 동시에 아비멜렉 이야기에 나타난 아비멜

2) S. M. Warner, "The Period of the Judges within the Structure of Early Israel", *Jewish Institute of Religion* 47 (1976), 57-79.

3) K. Okyere, "Culture of Politico-Religious Intrigues(Judges 9:1-21): Implications for Africa", *Ogbomosho Journal of Theology* 17 (2012), 57-75.

렉의 부정적인 행동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이야기에 나타난 신학적 통일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특별히 두 이야기의 신학적 통일성 분석을 위해 우상숭배와 신정통치, 그리고 폭력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우상숭배의 문제에서는 야웨제의와 바알제의의 문제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인 여룹바알에 담긴 신학적 의미 그리고 그가 만든 에봇 신앙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정통치의 문제에서는 왕정제도에 대한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 의도와 이를 기준으로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력의 주제에서는 기드온이 행한 폭력과 그 폭력이 확장되어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가서 절정에 이르게 됨을 다룰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기드온 이야기(삿 6-8장)와 아비멜렉 이야기(삿 9장)는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닌 신학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하나의 이야기이며, 신명기 사가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긍정적 사사가 아닌 부정적 사사로 부각시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왕정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기드온 이야기와 아비멜렉 이야기를 신학적인 통일성을 갖추어 편집하였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2. 우상숭배

1) 야웨 제의와 바알 제의

신명기 사가는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겪은 포로기의 원인이 야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드온 이야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드온은 야웨께서 직접 선택하였던 사사였다. 이야기의 초반에 기드온은

4) 임신호,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신학적 통일성", 「구약논단」 제59집 (2016년 3월), 38-61.

야웨와 바알의 대결에서 야웨의 대변자로 나타난다. 야웨는 기드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가 큰 용사이며, 야웨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삿 6:11-12). 기드온은 야웨를 위해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도 하였다(삿 6:24-32). 한편, 이슬과 관련한 이야기에서는 바알보다 야웨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삿 6:36-40).⁵⁾ 이처럼 이야기의 초반에 그는 야웨에 대한 신실성을 갖춘 사사였다. 하지만 이야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에게서 거룩성은 점차 사라졌으며, 임의로 에봇을 제작하여, 자신과 가정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였다(삿 8:22-35).⁶⁾ 곧 야웨께서 그에게 원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계절마다 섬기던 자신의 우상숭배들로부터 야웨만을 믿는 일신교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그는 우상숭배자로 전락하였던 것이다.⁷⁾

야웨 제의의 실패와 바알숭배에 있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신전의 은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형제들을 죽이는 악행을 자행하였다(삿 9:1-5). 이를 통해 아비멜렉은 이미 바알종교와 중요한 연관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록(D. I. Block)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행한 우상숭배는 기드온이 가나안 지역의 미디안인들을 정복하고 40년 동안 지배하는 동안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하였다.⁸⁾

-
- 5) 벡(J. A. Beck)은 이슬은 비를 의미하며, 신명기 11장 14절에서도 농경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야웨 한분이며, 열왕기상 17장 1절의 엘리야와 가뭄 이야기에서도 이슬과 비를 주시는 이가 바알이 아닌 야웨였으며,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야웨께서 이슬을 조작하여 비의 신인 바알보다 강하고 위대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J. A. Beck, "Gideon, Dew, and the Narrative-Geographical Shaping of Judges 6:33-40", *Bibliotheca Sacra* 165 (2008), 28-38 참조.
- 6) J. C. Exum, "The Contre Cannot Hold: Thematic and Textual Instabilities in Judge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2 (1990), 410-431.
- 7) R. G. Boling, *Judges*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75), 137; A. Fernández-Cano, "Drawing some evaluation patterns inferred from the biblical Gideon's passage", *Educ Asses Eval* (2010), 327-344; V. Endris, "Yahweh versus Baal: A Narrative-Critical Reading of the Gideon/Abimelech Narrativ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2 (2008), 173-195;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과 고대 가나안인의 신상들에 관한 연구(1)", 『장신논단』 26 (2006), 11-33.
- 8) D. I. Block,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6A; Nashville: B and H Publishing Group, 1999), 302-303.

사사기 9장 1절은 아비멜렉에 대한 소개의 시작을 기드온의 아들이 아닌 바알 숭배와 관련된 이름인 ‘여룹바알의 아들’로 시작한다. 이는 야웨와 바알에 대한 논쟁으로써 바알이 신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⁹⁾ 이점에서 기드온 이야기와 아비멜렉 이야기는 야웨와 바알이라는 두 신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충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곧 야웨와 바알의 싸움에서 야웨는 바알을 격파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인들은 야웨를 거절하고 바알을 따르는 우상숭배를 하였다는 것이다.¹⁰⁾ 기드온이 야웨의 뜻을 거절하고 우상숭배를 한 행위는 야웨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으며, 결국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가서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다.¹¹⁾

2)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여룹바알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름은 신명기 사가가 제시하려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다.¹²⁾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요아스(기드온의 아버지)가 제안하여 사용했으며, 후에 이 이름은 신의 이름으로 추앙받게 되었다(삿 6:31-32). 이에 대해 블럭은 ‘유감스럽게도 기드온은 가나안인들의 부정적인 종교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게 하였는데, 이는 당시 가나안 종교의 명백한 승리였다’고 설명한다.¹³⁾

יְרֻבְבָּאֵל (여룹바알/바알이 나를 위해 탄원하다)은 ‘바알로 하여금 그 자신이 위

-
- 9) B. P. Irwin, "Not Just Any King: Abimelech, the Northern Monarchy, and the Final Form of Judg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443-454.
- 10) V. Endris, 쿠틀, 173-195; J. Derby, "Gideon and the Ephraimites," *Jewish Bible Quarterly* 30 (2002), 118-120.
- 11) W. T. Koopmans, "Guile and Grief in Gideon's Gold a Sermon on Judges 8:27", 99-102.
- 12) A. G. Auld, "Gideon: Hacking at the Heart of the Old Testament", *Vetus Testamentum* 39,3 (1989), 257-267.
- 13) D. I. Block, "Will the Real Gideon Please Stand Up? Narrative Style and Intention in Judges 6-9",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0/3 (1997), 356-366.

대하디는 것을 입증하게 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¹⁴⁾ 여기에는 가나안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반어적으로 제시한 언어유희가 있는데, 여룹바알의 이름 속에는 바알의 무기력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⁵⁾ 이 이름은 후에 이스라엘에서 불쾌한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심지어 야웨에게 사용해야 할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마저도 그 본래의 뜻을 상실하게 만들었다.¹⁶⁾

신명기 사기는 여룹바알에 담긴 언어유희를 통해 바알은 스스로 위대하게 만드는 신이 아니라, 기드온('자르는 사람' 혹은 '잘라내는 사람')에 의해 잘려지는 존재라는 것을 제시하길 원했다.¹⁷⁾ 이들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 사무엘하 11장 21절에 가서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름은 '여룹베셋'으로 대체된다. 그 이유는 여룹바알의 이름이 '바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에서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수치스러운 의미를 의미하는 מְשֻׁבָּ (보셋트/수치스러운 것이 다툼 것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룹베셋'으로 바꾸었던 것이다.¹⁸⁾ 이처럼 신명기 사기는 기드온을 특별한 교훈적인 이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그의 두 번째 이름인 '여룹바알'을 통해서 그는 그가 행한 우상숭배를 비난하였던 것이다.¹⁹⁾

3) 에봇신상

하우저(A. J. Hauser)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가

-
- 14)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Leiden: Brill, 2001), 434.
 - 15) J. A. Soggin, *Judges* (Old Testament Library; Bloomsbury: SCM Press, 1981), 124-125; B. G. Webb, *The Book of Judge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2012), 236-237.
 - 16) K. E. Lowery,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Vol. 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746-747.
 - 17) T. C. Butler, *Judges* (Word Biblical Commentary 8; Nashville: Word books, 2009), 207.
 - 18) C. Mariottini,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3 (Nashville: Abingdon, 2008), 246.
 - 19) M. Garsiel, "Homiletic Name-Derivations as a Literary Device in the Gideon Narrative: Judges VI-VIII", *Vetus Testamentum* 43 (1993), 302-317.

며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적용했고, 심지어 야웨를 숭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상숭배의 방식을 택하여 살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드온과 같은 저명한 지도자의 행동에 대해 당시 중앙집권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검열도 하지 않고 그와 같은 행동, 즉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²⁰⁾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처럼 우상숭배를 하였는데 그는 임의로 에봇을 제작하여 이스라엘이 이를 섬기게 하였다. 에봇은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통해서만 야웨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즉 기드온은 에봇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우상숭배는 출애굽기 20장 3-6절의 계명을 어긴 행위였다.²¹⁾ 분명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는 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바알의 제단과 에봇을 만들었다.²²⁾ 이들이 야웨를 섬기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만든 행위는 우상숭배이다. 특별히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비교하게 만든다. 즉 신명기 사기는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통해 야웨 제의에 실패한 금송아지 사건처럼 기드온이 만든 에봇 신상은 야웨 제의에 실패한 우상숭배임을 제시하고자 했다(삿 8:24-28).²³⁾ תִּבְעֵן (에포드/제사장의 옷)는 격자무늬로 길게 제작된 제사장의 어깨걸이이다.²⁴⁾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제의를 위해 아마포로 제작한 제사장의 의복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문에서 에봇

20) A. J. Hauser, "Unity and Diversity in Early Israel Before Samuel",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2/4 (1979), 289-303; A. J. Hauser, "The Minor Judges: A Re-Evalua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4 (1975), 190-200.

21) 듀햄(J. I. Durham)은 구약성서의 법률자료의 대부분은 고대근동의 배경에 대비해서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신계명의 연대에 대해 멘델홀(G. Mendenhall)과 발쩌(K. Baltzer)는 구약성서의 언약법은 히타이트 족의 조약사항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J. I. Durham,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3; Waco: Word books, 1987), 278-280 참조.

22) A. J. Hauser, *윗글*, 289-303.

23) W. T. Koopmans, *윗글*, 99-102.

24) Feinberg, C. L., "תִּבְעֵן (ēpōd), תִּבְעֵן (ēpōd)",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ublishers, 1980), 63.

은 제의를 목적으로 한 물체를 의미한다.²⁵⁾ 이에 대해 웹(B. G. Webb)은 아마도 그 물체는 아마도 우림과 돌뭍 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⁶⁾ 하지만 무어(G. F. Moore)는 사사기 8장 27절에서의 에봇은 우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라고 지적하였다.²⁷⁾

기드온이 만든 에봇 신상은 사사기 17-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에봇 신상처럼 우상숭배를 의미한다. 또한 금을 취했던 그의 행위는 솔로몬이 소유한 다량의 금과 그가 행했던 우상 숭배를 연상케 한다.²⁸⁾

3. 신정통치

1) 왕정제도 거부

사사기는 신학적인 반복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주제의 반복이다.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이는 사사기의 반복패턴의 중심축에 기드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²⁹⁾ 특별히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은 신명기 사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군주제, 즉 왕정제도의 문제점이다.³⁰⁾ 신명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될 사항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신 17:14-20). 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군사력과 부를 의지하지 말고 야웨를 의지하라는 신정통치의 뜻을 담고 있는 구절이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공으로 다량의 금을 요구하였으며, 획득한 재물로 많은 아내를 두었다.

25) L. Koehler and W. Baumgartner, "עֵבֶט and גִּיְבֵיט", *HALOT*, Vol. 1 (Leiden: Brill, 2001), 77.

26) B. G. Webb, *The Book of Judges*, 윗글, 264.

27) G. F. Moore, *Judges*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895) 232.

28) A. G. Auld, 윗글, 257-267.

29) L. R. Klein, *The Triumph of Irony in the Book of Judges* (Sheffield: Almond Press, 1988), 49.

30) A. G. Auld, 윗글, 257-267.

그의 행동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왕이 갖추어서는 안 될 야웨의 금기사항을 어겼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중앙정부의 강력함과 평화로운 통치를 기대했는데, 이미 사사시대인 드보라와 기드온의 시대만해도 만 명에서 사만 명의 군사들을 모집(삿 4:6, 10; 5:8; 7:3)했던 것으로 볼 때에 다윗시대에는 이러한 통치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로인해 기드온의 시대에 강력한 군주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³¹⁾ 그러나 사사들의 권력은 지속성이 없었고, 이들에게는 통치의 정당성도 없었기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없었다. 즉 이들은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이는 신명기 사가가 제시하는 왕정제도를 부정하는 신학적 해석에 기인한 것이다.³²⁾

2) 왕정정치 시도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에 왕정체제를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며,³³⁾ 두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군주제로 가기 위한 훈련의 반복 사이클의 시작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의 이야기와 병행한다.³⁴⁾ 블록은 왕정체제의 시작점을 기드온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³⁵⁾ 기드온은 야웨의 대리자였다. 하지만 그는 야웨의 자리까지 자신의 위치를 정하였다. 사사기 7장 18절에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외쳐라”라는 그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야웨께서 받을 영광을 자신에게도 돌리게 하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31) G. E. Wright, “Archaeological Observations on the Period of the Judges and the Early Monarch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60 (1941), 27-42.

32) 제임스 L. 쿠겔, 『구약성경개론』 (김구원, 강신일 공역), (서울: CLC, 2011), 587-588. 원제는 J. L. Kugel, *How to Read the Bible* (New York: Free Press, 2007).

33) K. Okyere, 윗글, 57-75.

34) J. P. Tanner, “The Gideon Narrative as the Focal Point of Judges”, *Bibliotheca Sacra* 149 (1992), 146-161.

35) D. I. Block, “Will the Real Gideon Please Stand Up? Narrative Style and Intention in Judges 6-9”, 356-366.

사사기 8장 23절에서 기드온은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왕의 자리를 사양하는데, 언뜻 보기에 그의 말은 왕정 제도를 거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후 그의 행동들은 왕정제도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삿 8:24-31).³⁶⁾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비멜렉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다. 그는 계획적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학살하였다(삿 9:1-5). 이때 살아남은 막내 요담은 아비멜렉을 향하여 가시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는 재목으로 사용 가치조차 없는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만, 그 또한 가시나무처럼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³⁷⁾ 요담의 비유(삿 9:8-15)에 나오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언급하며, 기드온과 그의 집안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이는 기드온 이야기가 8장에서 끝나지 않고 9장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³⁸⁾ 이점에서 세겜인들이 아비멜렉을 거부한 것은, 곧 기드온 집안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왕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려는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³⁹⁾

신명기 사가는 기드온 이야기(삿 6-8장)의 결론 역할을 하는 아비멜렉 이야기(삿 9장)를 통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를 야웨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형제를 죽였던 아비멜렉의 모습은 왕으로서 정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왕정시

36) L. J. M. Claassens, “The Character of God in Judges 6-8: The Gideon Narrative as Theological and Moral Resource”,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23 (2001), 51-71.

37) 이금재, “사무엘상 8장 11-17절의 ‘왕의 권리’: 왕의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글”, 『구약논단』 66 (2017. 12), 14-41.

38) D. Janzen, “Gideon’s House as the 728: A Proposal for Reading Jotham’s Fable”,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4 (2012), 465-475; S. Tatu, “Jotham’s Fable and the Crux Interpretum in Judges IX”, *Vetus Testamentum* 56,1 (2006), 105-124.

39) M. Garsiel, *뵈글*, 302-317.

대 발생하였던 후계자 싸움에서 확인가능하다. 즉 왕정에서의 후계자 싸움은 싸우는 자에 대한 왕권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다.⁴⁰⁾ 이런 관점에서 아비멜렉의 행동은 부당한 것이었으며, 왕권 싸움을 위해 형제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의 행동은 야웨의 뜻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아비멜렉 이야기와 사울 왕의 이야기는 유사한 점을 그리고 있다. 먼저 아비멜렉과 사울은 각각의 경쟁자가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그의 이복형제가 있었고, 사울의 경우 다윗이라는 경쟁자가 있었다. 또한 아비멜렉은 칠십 형제들과 세겔 사람들을 학살하였으며, 사울 역시 놉의 팔십오 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함을 볼 수 있다. 아마 신명기 사가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아비멜렉 이야기를 편집하였을 것이다.⁴¹⁾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형제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은 야웨의 뜻에 반(反)하는 것이며,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신정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4. 폭력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대로 하였다”는 것이다(삿 17:6; 21:25). 즉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했던 시대였다. 이 시대의 악행은 개인이 개인에게 행한 폭력과 개인이 공동체에게 행한 폭력, 그리고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행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⁴²⁾

사사기의 중심주제에 대해 맥캔(J. C. McCann)은 사사기를 ‘폭력의 이야기’

40) 손중희, “דָּוִד וְאַחֵי אִיִּשָׁבֶבֶת” 다윗 왕위 계승 순위의 뒤틀림, 「구약논단」 60 (2016. 6), 98-131.

41) B. P. Irwin, 윗글, 443-454; 이에 대해 R. H. O'Connell,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Leiden: Brill, 1996) 참고.

42) 임신호, “내전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통일성”,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56-161.

라고 언급하였다.⁴³⁾ 사사기는 폭력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폭력의 형태는 전쟁, 살인, 강간 등 다양하다. 이는 사사 시대가 불법의 시대이며, 동시에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이다.⁴⁴⁾

1) 기드온의 폭력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 그는 숙곳과 브누엘사람들에게 자신의 추격을 도울 것을 요구하였지만,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그의 요청을 무시했으며 또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거나, 도와주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숙곳과 브누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였다(삿 8:4-21). 이는 기드온의 개인적인 폭력이었으며, 그가 행했던 악행이었다.⁴⁵⁾ 기드온 이야기에 나타난 폭력의 두 가지 문제는 기드온이 행한 숙곳, 브누엘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폭력형태의 학살과 그의 사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⁴⁶⁾

사사시대는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지파간의 내전을 벌여 부족 간의 위협을 주기도 하였다. 기드온의 경우는 숙곳과 브누엘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의 경우는 세겜과의 내전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동족간의 학살은 야웨의 눈에 보시기에 악행이었다.⁴⁷⁾

한편, 신명기 사가는 의도적으로 기드온 이야기의 숙곳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의 숙곳(창 33:17)을 연결한다.⁴⁸⁾ 창세기에서 ‘숙곳’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곳이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숙곳은 기드온과의 적대적 관계로 재등장함을 볼 수 있다.⁴⁹⁾ 이처럼 야곱 이야기에

43) J. C. McCann, *Judge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56.

44) J. A. Hackett, "Violence and Women's Lives in the Book of Judges", *Interpretation* 58 (2004), 356-364.

45) 임신희,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사사 시대의 내전 연구", 『장신논단』 48 (2016. 12), 119-141.

46) L. J. M. Claassens, *윗글*, 51-71.

47) M. A. Sweeney, "Davidic Polemics in the Book of Judges", *Vetus Testamentum* 47,4 (1997), 517-529.

48) A. G. Auld, *윗글*, 257-267.

49) B. D. H. Hilvert, "Joseph's Dreams, Part One: From Abimelech to Sau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등장하는 숙곳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반복하여 나타난다. 숙곳과 관련한 두 이야기는 폭력과 학살이라는 주제에서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아굽의 딸 디나를 성폭행한 결과로 시므온과 레위는 숙곳 사람들을 학살하였다. 숙곳 사람들에 대한 폭력은 기드온에게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보복을 위해 숙곳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특별히 기드온은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동정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의 학살 행위에는 야웨로부터 직접적인 신성한 계시도 없었다. 게다가 모든 면에서 그의 학살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복수였다.⁵⁰⁾

2) 아비멜렉의 폭력

기드온이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행했던 폭력은 8장에서 끝나지 않고 9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결과는 비참하였다. 웨은 사사기는 폭력에 대한 주제의 연속으로 특별히 8장에서 보여준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와 9장에 나타난 아비멜렉의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⁵¹⁾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행했던 기드온의 악행은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확장되어 아들 아비멜렉에 가서 절정을 이룬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학살을 하였으며, 그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행한 폭력은 과거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기드온의 고백인 '야웨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삿 8:23)는 것을 의심케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이다.⁵²⁾

아비멜렉은 기드온과는 달리 야웨의 특정한 부르심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였고(삿 9:1-3), 용병을 고용하였다(삿 9:4). 나아가 이를 기반

Old Testament 35.3 (2011), 259-283.

50) J. C. McCann, *윗글*, 69.

51) B. G. Webb, "The Wars of Judges as Christian Scriptur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67 (2008), 18-28.

52) J. C. McCann, *윗글*, 72.

으로 그의 살인행위는 칠십 명의 형제들을 죽였으며, 세겜과의 내전으로 이어졌다.⁵³⁾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과의 내전에서 여성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다(삿 9:50-57). 아비멜렉을 죽인 여성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아비멜렉의 죄에 대한 행위회복의 사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하지만 아비멜렉을 죽인 여성에 대해 53절에 나오는 ‘한 여성’에서 ‘한’을 지칭하는 אִתְּךָ(아하트/하나)는 단지 ‘어떤 여성’(certain woman)이라는 뜻이 아닌 ‘유일한 여성’, ‘독실한 여성’(a lone woman)을 의미한다.⁵⁵⁾ 곧 히브리어 ‘아하트’는 אֶחָד(에하드/하나)에서 파생한 여성형 서수이기에 ‘어떤’이 아닌 ‘유일한’으로 해석해야만 한다.⁵⁶⁾ 곧 아비멜렉을 죽인 여성의 이야기를 행위회복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아비멜렉을 죽인 여성을 통해서 한 여성의 중요성이 부각됨과 그가 여성에게 죽게 된 것은 그가 행한 폭력의 비참한 결과와 허무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신명기 사가의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의 통일성

앞서 왕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행동은 신정통치의 입장에서 거부됨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야웨의 선택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상숭배와 폭력을 자행했다.

사사기 8장과 9장은 기드온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기드온은 8장에서 왕권세습을 거절하고 자신의 자녀들도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삿 8:22-

53) B. P. Irwin, *윗글*, 443-454; 임신호,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사사 시대의 내전 연구”, 119-141.

54) T. A. Boogaart, “Stone for Stone: Retribution in the Story of Abimelech and Sheche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2 (1985), 45-56.

55) J. G. Janzen, “A Certain Woman in the Rhetoric of Judges 9”,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8 (1987), 33-37.

56) L. Koehler and W. Baumgartner, *윗글*, 29-30; H. Shalom-Guy, “Three-Way Intertextuality: Some Reflection of Abimelech’s Death at Thebes in Biblical Narrativ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4 (2010), 419-432.

23). 하지만 기드온은 왕처럼 많은 자녀를 두었다. 그는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칠십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삿 8:30; 9:2).⁵⁷⁾ 신명기 사기는 의도적으로 세바와 살문나의 고백에서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삿 8:18)고 말함으로써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드온의 가문이 왕가의 모습이었음을 연상케 한다. 나아가 이들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기드온을 ‘여룹바알’(바알이 다룰 것이다)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되려 했던 기드온을 비하해서 기술한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길 원했던 그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물이 아비멜렉이었음을 제시한다.⁵⁸⁾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점과, 동시에 일신교이었던 야웨주의가 아닌 바알을 섬기는 방식의 가나안 종교와의 통합주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⁵⁹⁾ 오코넬(R. H. O'Connell)은 기드온 이야기의 끝은 사사기 8장이 아닌 9장이며,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연결하여 기드온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결론이 아닌 부정적인 결론으로 읽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사기에 나오는 각각의 이야기는 다음이야기와 연결되는데, 기드온 이야기 또한 이어지는 아비멜렉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⁶⁰⁾ 6-8장까지의 기드온 이야기와 이어지는 9장의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서고자 했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통일성 있게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은 8장이 아닌 9장의 아비멜렉 이야기이며, 9장에서 전체 기드온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있다.⁶¹⁾ 왕의 자리를 거부했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기드온과 노

57) K. M. Heffelfinger, "My Father is King: Chiefly Politics and the Rise and Fall of Abimele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3 (2009), 277-292.

58) W. T. Koopmans, *윗글*, 99-102.

59) B. D. H. Hilvert, *윗글*, 259-283; 가나안 종교의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임신호, "일타의 인신제사에 대한 신명기 사기의 평가", 『장신논단』 50 (2018. 3), 11-33 참조.

60) R. H. O'Connell, *윗글*, 139-171.

61) W. T. Koopmans, *윗글*, 99-102.

골적으로 왕이 되려했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모습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기드온과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부정적인 결론을 토대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기드온이 나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블록은 기드온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다. 그는 기드온은 불법을 행한 자이며,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가나안 종교의 부정적인 대명사이며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블록은 기드온 이야기는 8장이 아닌 9장까지 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기드온 이야기가 왕정제도를 거절한 영광스러운 신학적 관점으로 결론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기드온의 죽음까지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기드온 이야기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것을 제시하였다.⁶²⁾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기드온이 포함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⁶³⁾ 그는 처음부터 부족했지만 야웨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강한 용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왕정제도를 거부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우상숭배를 하였으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사였다.

6. 나가는 말

신명기 사가는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겪었던 억압과 고통의 원인을 그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와 야웨의 뜻을 어겼던 불순종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설명의 기준은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율법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율법에서

62) D. I. Block, "Will the Real Gideon Please Stand Up? Narrative Style and Intention in Judges 6-9", 356-366.

63) W. T. Koopmans, *율법*, 99-102.

제시한 야웨의 뜻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다.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⁶⁴⁾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기드온 이야기(삿 6-8장)와 아비멜렉 이야기(삿 9장)에 나타난 신학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연구자는 첫째로, 기드온이 행한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었다. 기드온의 초기 모습은 야웨의 대변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후에 그는 바알의 대변자로 우상숭배를 하였다. 그가 행한 우상숭배는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였다. 즉 기드온은 야웨 제의를 실패한 사사였다. 또한 그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야웨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임의로 에봇을 제작하였으며, 신명기에서 명령하였던 왕이 갖추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쌓지 말 것’(신 17:16-17)에 대한 사항을 어겼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신전의 은을 가지고 형제들을 살해하는 악행을 하였는데, 이는 아비멜렉이 바알종교와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신정통치의 기준에 의해 왕정제도의 부정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신명기 사가는 이스라엘이 겪은 포로기의 원인을 그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와 불순종에서 찾았으며,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왕들이 있었다고 여겼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야웨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왕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런 신학적 관점에서 기드온의 초기 행동은 왕을 거부하였지만, 후기 그는 신명기에서 금지한 왕이 갖추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갖추었으며, 아들의 이름마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아비멜렉’이란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왕의 자리를 얻고자 하였다. 이처럼 기드온과 아비멜렉

64) 우택주, “해석의 힘과 힘의 해석: 종교개혁의 구호 ‘성서만으로’에 대한 성찰”, 「구역논단」 제68집 (2018년 6월), 144-174.

은 신정통치를 따르기 보다는 왕정통치를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드온 이야기와 아비멜렉 이야기는 폭력이라는 주제로 접근할 때에 하나의 주제로 연결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복수와 권력에 대한 집착은 무고한 이들을 죽이고, 가족을 학살하고, 나아가 동족간의 전쟁으로 이어짐을 통해서 두 이야기는 신학적인 통일성을 갖추어 편집되었다는 것을 다루었다.

이 연구를 통해 기드온 이야기(삿 6-8장)와 아비멜렉 이야기(삿 9장)는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닌 통일성을 갖춘 하나의 이야기이며, 사사 기드온과 관련한 아비멜렉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임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신명기 사가는 기드온 이야기에서 그를 긍정적인 사사가 아닌 우상숭배와 폭력의 부정적인 모습의 사사로 기술함을 보았다. 이를 통해 기드온 이야기와 아비멜렉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왕정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인 편집의도에 따라 통일성 있는 이야기로 편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7.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과 고대 가나안의 신상들에 관한 연구(1)”, 『장신논단』 26 (2006), 11-33.
- 손중희. ““אֱלֹהֵי אֲמֹנִי”-다윗 왕위 계승 순위의 뒤틀림”, 『구약논단』 60 (2016. 6), 98-131.
- 우택주. “해석의 힘과 힘의 해석: 종교개혁의 구호 ‘성서만으로’에 대한 성찰”, 『구약논단』 68 (2018. 6), 144-174.
- 임신호. “입다의 인신제사에 대한 신명기사가의 평가”, 『장신논단』 50 (2018. 3), 11-33.
- _____.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사사 시대의 내전 연구”, 『장신논단』 48 (2016. 12), 119-41.
- _____. “내전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통일성”, 『한남대학교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
- _____.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신학적 통일성”, 『구약논단』 59 (2016. 3), 38-61.
- 이금재, “사무엘상 8장 11-17절의 ‘왕의 권리’: 왕의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글”, 『구약논단』 66 (2017. 12), 14-41.
- 제임스 L. 쿠겔, 『구약성경개론』 김구원, 강신일 공역. 서울: CLC, 2011. 원제는 J. L. Kugel, *How to Read the Bible* (New York: Free Press, 2007).
- Auld, A. G. “Gideon: Hacking at the Heart of the Old Testament”, *Vetus Testamentum* 39,3 (1989), 257-267.
- Beck, J. A. “Gideon, Dew, and the Narrative-Geographical Shaping of Judges 6:33-40”, *Bibliotheca Sacra* 165 (2008), 28-38.
- Berman, J. “The Legal Blend in Biblical Narrative (Joshua 20:1-9, Judges 6:25-31, 1 Samuel 15:2, 28:3-25, 2 Kings 4:1-7, Jeremiah 34:12-17, Nehemiah 5:1-12)”,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4 (2015), 105-125.
- Block, D. I. “Will the Real Gideon Please Stand Up? Narrative Style and Intention in Judges 6-9”,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0/3 (1997), 356-366.
- Block, D. I.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6A;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1999.
- Boling, R. G. *Judges*.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75.
- Boogaart, T. A. “Stone for Stone: Retribution in the Story of Abimelech and Sheche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2 (1985), 45-56.
- Butler, T. C. *Judges*. Word Biblical Commentary 8; Nashville: Word books, 2009.
- Claassens, L. J. M. “The Character of God in Judges 6-8: The Gideon Narrative as Theological and Moral Resource”, *Horizons in Biblical The-*

- ology* 23 (2001), 51-71.
- Derby, J. "Gideon and the Ephraimites", *Jewish Bible Quarterly* 30 (2002), 118-120.
- Durham, J. I.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3; Waco: Word books, 1987.
- Elliger, K. and Rudolph, W.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Fifth Revised Edition. ed., A. Schenk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7.
- Endris, V. "Yahweh versus Baal: A Narrative-Critical Reading of the Gideon/Abimelech Narrativ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2 (2008), 173-195.
- Exum, J. C. "The Centre Cannot Hold: Thematic and Textual Instabilities in Judge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2 (1990), 410-431.
- Fernández-Cano, A. "Drawing some evaluation patterns inferred from the biblical Gideon's passage", *Educ Asse Eval* (2010), 327-344.
- Freedman, D. N.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6 vols. New York: Doubleday, 1992.
- Garsiel, M. "Homiletic Name-Derivations as a Literary Device in the Gideon Narrative: Judges VI-VIII", *Vetus Testamentum* 43 (1993), 302-317.
- Guest, P. D. "Can Judges Survive Without Sources?: Challenging the Consensu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8 (1998), 43-61.
- Hackett, J. A. "Violence and Women's Lives in the Book of Judges", *Interpretation* 58 (2004), 356-364.
- Hauser, A. J. "Unity and Diversity in Early Israel Before Samuel",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2/4 (1979), 289-303.
- Hauser, A. J. "The Minor Judges: A Re-Evalua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4 (1975), 190-200.

- Heffelfinger, K. M. “My Father is King’:Chiefly Politics and the Rise and Fall of Abimele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3 (2009), 277-292.
- Hilvert, B. D. H. “Joseph’s Dreams, Part One: From Abimelech to Sau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5.3 (2011), 259-283.
- Irwin, B. P. “Not Just Any King: Abimelech, the Northern Monarchy, and the Final Form of Judg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443-454.
- Janzen, D. “Gideon’s House as the **בֵּית**: A Proposal for Reading Jotham’s Fable”,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4 (2012), 465-475.
- Janzen, J. G. “A Certain Woman in the Rhetoric of Judges 9”,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8 (1987), 33-37.
- Klein, L. R. *The Triumph of Irony in the Book of Judges*.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8.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 vols. Leiden: Brill, 2001.
- Koopmans, W. T. “Guile and Grief in Gideon’s Gold a Sermon on Judges 8:27”, *Calvin Theological Journal* 37 (2002), 99-102.
- Harris Laird R., Archer, Jr Gleason L., and Waltke Bruce K.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ublishers, 1980.
- McCann, J. C. *Judge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Moore, G. F. *Judges*.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895.
- O’Connell, R. H.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Leiden: Brill, 1996.
- Okyere, K. “Culture of Politico-Religious Intrigues(Judges 9:1-21): Implications for Africa”, *Ogbomoso Journal of Theology* 17 (2012), 57-75.

- Sakenfeld, K. D.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5 vols. Nashville: Abingdon, 2006-2009.
- Shalom-Guy, H. "Three-Way Intertextuality: Some Reflection of Abimelech's Death at Thebes in Biblical Narrativ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4 (2010), 419-432.
- Soggin, J. A. *Judges*. Old Testament Library; Bloomsbury: SCM Press, 1981.
- Sweeney, M. A. "Davidic Polemics in the Book of Judges", *Vetus Testamentum* 47,4 (1997), 517-529.
- Tanner, J. P. "The Gideon Narrative as the Focal Point of Judges", *Bibliotheca Sacra* 149 (1992), 146-161.
- Tatu, S. "Jotham's Fable and the Crux Interpretum in Judges IX", *Vetus Testamentum* 56,1 (2006), 105-124.
- Warner, S. M. "The Period of the Judges within the Structure of Early Israel", *Jewish Institute of Religion* 47 (1976), 57-79.
- Webb, B. G. *The Book of Judge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2012.
- _____. "The Wars of Judges as Christian Scriptur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67 (2008), 18-28.
- Wright, G. E. "Archaeological Observations on the Period of the Judges and the Early Monarch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60 (1941), 27-42.

검색어

기드온

아비멜렉

신정정치

우상숭배

신명기 사가

Theological Unity in the Story of Gideon (Judg 6-8) and the Story of Abimelech (Judg 9)

Sin-Ho LIM

Lecturer at Hannam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Ph.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ological unity in the story of Gideon (Judg 6-8) and the story of Abimelech (Judg 9). In this study, I will deal with the issue of idolatry, theocracy, and violence for the analysis of the theological unity of the two stories. Regarding the matter of idolatry, this paper looks into the problem of YHWH and Baalism,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Jerub-Baal, another name of Gideon, and the Ephod that he made with gold. Next, regarding theocracy, this study examines the theological intentions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and, on the basis of these, the problems of the royal system in the story of Gideon and Abimelech. Finally, through the theme of violence,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violence done by Gideon and clarify that it is transplanted to his son Abimelech and developed further to its peak.

Through this study, I consider that the Gideon story (Judg 6-8) and the Abimelech

www.kci.go.kr

story (Judg 9) are not separated but unified in terms of subject.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did not regard Gideon as a theologically positive figure obedient to the faith of YHWH, but he edited the latter half of the story with the theological unity that idolatry, the denial of theocracy, and the legacy of violence, all of which are done by Gideon, are inherited to his son, Abimelech and solidified.

Keywords

Gideon

Abimelech

theocracy

idolatry

Deuteronomistic historian

- 투고일: 2019년 4월 13일
- 심사일: 2019년 4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4월 29일

www.kci.go.kr